

### 목어 테러와 똑같은 진압



테러는 잘못된 인간집단의 공업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한다. 이번 러시아에서 일어난 인질테러 사건도 그 극한적인 대처 상황과 러시아 정부의 강경진압에 이르기까지, 어떤 비극 영화보다도 더 진하게 온 세계를 당혹과 경악, 그리고 슬픔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어떤 목적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에 테러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일단 어떤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비극의 참상을 목도한 여론은 테러에 대한 비난에 한 목소리를 내기 마련이다. 그리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응집되고 지지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된다. 이번 테러사건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진압방식에도 비난이 쏟아지는 편이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편 걱정이 되는 것은 테러 방지나 진압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는 사고방식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테러를 행하는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이다. 그러한 방식을 용인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테러를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고방식에 따른 수많은 테러들을 낳게 되지 않을까?

테러는 어떤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나 사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느끼는 집단들이 동원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다. 그 구조나 사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힘이 너무도 강하며, 또 자신들이 놓인 부당한 처지에 대한 호소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절망이 낳는 단발마적인 몸부림인 경우가 많다. 단지 죄없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으로 요구하는 비정한 결과만 보고 또다시 그 몸부림을 외면하면 그들은 더욱더 처절한 몸부림을 치게 되지 않을까? 테러가 일어나게 되는 사태는 오랜 기간 쌓여와 얽히고 설킨 근본적인 모순이 바닥에 깔려 있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선뜻 어떤 편도 들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테러밖에 동원할 수단이 없다고 느끼는 절망적인 집단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우선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외롭지만은 않다는 느낌이야말로 극단적이고 단발마적인 몸부림으로 치달리는 것을 막아주는 최선의 방패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본지 논설위원)

"하루 평균 6시간59분 공부, 4시간24분 여가 활동, 일주일에 10시간30분 인터넷 접속,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3만1천4백원, 79%가 가솔 자동차 경험..."

는 그리 문제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으로

### 불자 세상보기



최성렬  
조선대 교수  
철학과

10월 23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청소년 보호 백서>에 나타난 우리 청소년들의 실상이다. 언뜻 보서

나타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교감이 부족하고, 선생님과의 신뢰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사회환경도 음주와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PC방(95%), 전자오락실(91%), 노래방(89%) 등 이른바 청소년 유흥업소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학교 폭력, 왕따, 교실 붕괴 현상, 각종 비행 등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여간 머리 무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이다. 고교생의 22%는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하루에 1분도 안 된다. 그렇다고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고작 1분에도 못 미친다는 응답이 11%나 된

고교생의 89%는 "사회가 불만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노력에 따라 장애에 성공할 수 있다" 90%거나, "한국인인 사실이 만족스럽다" 67%는 등 정신적 건강함을 잃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나서서 제대로 이끌어 주지만 한다면 그들의 장애는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의 시간을 늘리고 애정과 관심의 폭을 확대해 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성적 인간을 호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 하고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간을 호모 로퀸스(homo loquens : 언어적 인간)라고 한다. 이제 그 위력을 확신해 볼 때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족간이나 사제간의 대화 태도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많은 부모와 교사들은 자식이요 제자인 청소년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언어의 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7%에 불과한데도 우리들은 말의 내용을 너무 고집했던 것은 아닐까? 말의 내용을 언어적 기법이라고 한다면 말투나 억양 몸짓이나 표정, 자세나 분위기 등은 비언어적 기법이다. 이제부터는 그런 비언어적 기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 '아름다움과 깨달음展' 을 보고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주최로 서울 가나아트센터(10월 17~28일)에 이어 경주 선재미술관(11월 1~11일)에서 열리고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의 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시는 여러모로 의의가 크다. 근 현대 미술과 불교와의 관련관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이 같은 불교미술 전시가 이제서야 처음으로 개최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다. 이번 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작고작가의 작품 발굴인 점이다. 근대기에 활동했던 작고 작가의 불교작품을 발굴하여 미술계에 소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황계 정중여의 괴물이라든가 오지호의 후불탱화 같은 작품들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필자를 강하게 이끈 작품은 바로 정관(井觀) 김복진(1901~1940)선생의 <정혜사 관음보살좌상>(1939년)이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전시장에서 정관선생의 작품을 마주할 수 있다. 이는 커다란 안목이 아닐 수 없다.

정관선생은 일제하 활동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각가인 것은 물론 미술비평가요, 언론인, 사상운동가다. 현재 미술인 가운데 유일하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독립운동가라는 점만 가지고도 역사에 길이 남을 선구자라 생각한다. 정관선생은 김계 금사사 미륵본존상을 비롯 속리산 법주사의 미륵대불 등 다수의 불상을 제작했다. 일반작품이 현존하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서 그의 불상작품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다.

필자는 오늘도 불상제작에 임하면서 정관선생의 작가정신을 되새김질한다. 필자는 1970년대 후반, 예산 수목사에서 산적이었다. 당시 원담 큰스님의 육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하루는 스님께서 정혜사 관음상의 작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 관음상의 작가는 바로 김복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성 당시 만공스님의 부부도 거든 일화를 비롯 사주자인 김수근 일가라든가, 후불탱화의 불모인 보은스님 등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후 필자는 수시로 정혜사에 올라가 김복진의 관음상을 참배하면서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속리산 법주사에서 지내게 되었다. 당시 선방에는 월남스님이 계셨다. 스님께서서는 청주 용화사 주지로 계실 때 불상조성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바로 김복진에 대한 증언이었다. 1930년대 후반 김복진은 용화사에서 다수의 불상을 제작했다. 1986년 법주사에서 월남스님으로부터 수목사 신내 암자인 정혜사 관음전의 관음상은 바로 정관선생의 작품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정관선생은 법주사 대불 제작 중 필자를 내 만공스님의 부부를 받고 정혜사 보살상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주사 대불의 미완은 이 정혜사 불상을 정관선생의 최후의 완성작으로 남게 했다.

육중에서도 불상을 깎았던 선생은 출옥 후에도 여러 군데서 불상작품을 제작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의 원작은 파괴된 채 남아 있지 않다. 이번 정관선생의 정혜사 관음상을 서울 전시장에서 친견할 수 있었으니, 그 감회는 이루 무엇이란 고 표현하기 어렵다. 정관선생의 불상작품이 전시된 이번 미전은 불교계는 물론 미술계에서도 획기적인 일이다. '아름다움과 깨달음' 전시는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김익홍 (만다라불교미술연구소장)

### 불자의 생각

#### 신행상품

불자들은 디지털 불경이나 전자목탁 등 신행관련 상품들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4명이 동참한 불자뉴스네이션 설문조사에서 신행관련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



#### "널리 보급할 필요 있다" 68%

한 결과 78명(68%)이 '편리하므로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36명(32%)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행상품들을 실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81명(71%)가 있다. 33명(29%)이 '없다'고 응답했다.

김두식 기자

### 현대불교를 읽고

####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기사 '경전 만화' 꿈꾸는 내게 용기

불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다고 발원했던 참에 현대불교신문 389호 1면에 보도된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이란 기사는 내게 자신감을 주었다. 오계를 범해서 교도소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참보살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불교공부와

신행을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불보살님들의 일대기, <전등록> 등과 같은 경전을 만화로 제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도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만화야말로 내가 부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 믿고, 현재 관련 기사들을 일일이 스크랩 하고 있다. 바깥세상과 차단된 이곳 생활은 좀 더 많은 자료와 그림을 구하기 힘든데다가 내가 만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부족하다보니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현대불교의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기사는 내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물론 나의 발원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

박봉주(원주교도사수급증)

### 극락보전 상량식과 산신대불 점안 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시고!  
신도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시방세계가 불국토를 이루시길 발원하옵습니다.  
무릉산 일도사에서 신도님들의 크신 원력으로 극락보전 상량식과 산신대불 점안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일본 신도님들의 정성과 한국 신도님들의 정성과 한국신도님들의 원력으로 복지도량을 위한 1차 45명 극락보전 상량식과 12m 산신대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루 참석하시어 신도님들의 가정에 평안하심과 소원 성취를 함께 이루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 아 래 -

- 일시: 2002년 11월 16일 토요일 (음력 10월 12일)
- 시간: 오전 10:00
- 장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진리 무릉산 일도사
- 연락처: 영덕 일도사 054)733-8786  
서울 자비정사 02)475-8600  
부산 팔성관광 051)518-8614  
당일 서울 조계사 앞 06:00 출발합니다.

무릉산 일도사(세계 불교 박물관) 합창  
협찬 만덕불상 054)241-2402

### 정통 기문문갑사주학강의

(사주, 작명, 택일, 단시, 양택풍수학)

정확한 사주명리의 해석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수를 받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 교육방법: 원장 민강 손해림선생 직강 (현)경희대학교사회교육원교수
- 개인지도: 개인의 특성과 시간에 맞춘 속성특수지도
- 그룹지도: 해당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수시접수)
  - 월요일 - 초급반(기문조식법과 사주원리론)
  - 화요일 - 중급반(사주, 연운, 월운해단법)
  - 수요일 - 고급반(작명, 택일, 단시, 양택풍수, 병방)
- 출장지도: 방문직강

문의: 민강기문역학원 02)3476-3433

서초구 잠원동 69의 20호 반포소방 7층 415호  
강남고속터미널건너편 뉴코아본관 옆  
http://www.gimun.net

### 건강마시찌 솜밭옴옥끼

수족온욕이란 수족온욕은 더운물을 용기에 담아 손과 발을 담그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늦은아침에 뜨거운 물을 담아 인진(약)명반을 풀어 손과 발을 담그고 넓은 천으로 머리에서부터 전신을 덮어 두리고 발한을 시켜, 몸을 훌러덩 함으로써 감기 몸살을 예방 치료하였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건강에 증진하였습니다.

다야 200 98X100 → 660,000  
신속순 100명에게 개미듬뿍 광진수 20리터 무료로 드립니다!

솜밭옴옥끼 꼭 필요하신 분들

- 당뇨의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수술 후 빠른회복과 전이 방지를 원하시는 분
-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 피로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냉·대후로 고생하시는 분
- 산후조리 중이신 분
- 심한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

실용신안등록증 제 0281998호  
의정등록증 제 0250258호 제 0250259호

제조원: (주)림조산업 LIM HO INDUSTRIAL  
판매원: GE - 코리아  
주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호 502호  
전화: (대) 02)475-6669 팩스: 02)475-4356  
http://www.onyok.com

### 당뇨 시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시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은 인공합성 제품보다 자연에서 추출된 것이 건강에 안전합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공합성 원료 부족하여 눈개 삼승인 시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원천적으로 당뇨병을 예방하며 당뇨병을 확실하게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개선 예방 뿐만 아니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도 공헌하며 공헌하여 무진당 영양비타민 조제 정제입니다.

▶ 시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시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경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질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맥중장,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안, 안질환, 고혈압

초점메달리언즈 Co.  
(주)반도대학연구소사업부  
무릉산 일도사 (02)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